

# 래양의 축복을 받은 신념과 의지의 강자들

9월 2일은 지금으로부터 22년 전 신념과 의지의 강자들인 63명의 비전향장기수들이 은혜로운 조국의 품, 공화국의 품에 안긴 날이다.

이날을 맞으며 사람들은 철세위인들께서 비전향장기수들에게 돌려주시는 하늬같은 은정을 다시금 돌이켜보면서 그 어떤 역경 속에서도 자기 령도자만을 굳게 믿고 따르는 불같은 신념과 의지야말로 인생의 가장 귀중한것임을 뜨겁게 느끼고있다.

감격도 새로운 2000년 9월 2일.

비전향장기수들이 판문점봉리선을 넘어 조국의 품에 안기던 그 날은 나라가 환희와 격정으로 설레고 온 세계가 또다시 충격속에 조선을 바라보았다.

과연 그 누가 한두명도 아니고 수십명이나 되는 비전향장기수들이 한날한시에 조국의 품에 안기게 되리라고 상상이나 할수 있었겠는가.

그것은 비전향장기수들을 조국과 민족을 위한 길에 인생을 바친 참된 혁명가, 투사들로 내세워주시고 그들을 사랑의 한복에 안아 모든 행복과 영광을 안겨주시려고 온갖 로고와 심혈을 바치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숭고한 혁명적동지애와 의리가 안아온 기적이었다.

주체89(2000)년 6월 어느날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우리는 남조선에 있는 비전향장기수들을 그들의 소원대로 모두 데려와야 한다고, 데려다 지극히 누르보지 못한 행복한 삶을 마음껏 누리게 해주어야 한다고 뜨겁게 교시하시였다. 그로부터 며칠후에도 인간으로서 그들의 고향을 당하면서 30~40년동안 지조를 지킨다는 것이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니라, 전향하겠다는 한 한마디만 하면 감옥살이고통을 면할수 있었지만 비전향장기수들은 그 어떤 유혹이나 강압에도 굴하지 않았다고 하시면서 그들을 데려오면 최상으로 우대해주고 높이 내세우며 자랑하여야 한다고 하신 위대한

장군님이다. 그 열화같은 사랑과 의리의 세기에 떠받들려 력사적인 평양상봉과 함께 채택된 6.15북남공동선언에 비전향장기수문제와 관련한 조항이 큼직하게 설정되게 되었으며 조국의 품에 안기는 비전향장기수들의 앞길에 환영의 꽃바다가 펼쳐지고 그들모두가 평양에 와서 행복과 영광의 절정에서 복된 삶을 누리게 되었던 것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비전향장기수들을 당의 품에 데려왔으니 마음이 놓인다고, 이제는 그들이 충훈을 되찾아 여생을 아무런 불편이 없이 행복하게 보내도록 하는것이 자신의 임무로 된다고 하시며 크나큰 은정과 배려를 거듭하셔서 안겨주시었다.

철세위인들의 넓고 따사로운 사랑의 품에서 60여명의 비전향장기수들이 지금껏 맞고보낸 무수한 날과 달들은 만사람의 심장을 울려주는 사랑과 믿음의 서사시로 수놓아져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남녘의 각역에서 수십년간 옥살이를 하면서 누리지 못한 행복, 빼앗겼던 안아 모든 행복과 영광을 안겨주시려고 온갖 로고와 심혈을 바치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숭고한 혁명적동지애와 의리가 안아온 기적이었다.

주체89(2000)년 6월 어느날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우리는 남조선에 있는 비전향장기수들을 그들의 소원대로 모두 데려와야 한다고, 데려다 지극히 누르보지 못한 행복한 삶을 마음껏 누리게 해주어야 한다고 뜨겁게 교시하시였다.

그로부터 며칠후에도 인간으로서 그들의 고향을 당하면서 30~40년동안 지조를 지킨다는 것이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니라, 전향하겠다는 한 한마디만 하면 감옥살이고통을 면할수 있었지만 비전향장기수들은 그 어떤 유혹이나 강압에도 굴하지 않았다고 하시면서 그들을 데려오면 최상으로 우대해주고 높이 내세우며 자랑하여야 한다고 하신 위대한



한 물고기도 그들의 식탁에 먼저 오르도록 해주시고 민족명절날이면 민족음식을 잘 차려 대접하라고 오곡까지 보내주시는 다심한 사랑, 삼복철이면 몸보신에 좋다는 단고기도 맛있게 하시고 눈은 겨울이면 털내기와 솜옷, 털신과 털모자까지 보내주시는 뜨거운 은정, 생일을 맞는 비전향장기수들에게 생일상도 보내주시는 친어머니의 보살핌...

이 세상 그 어디에도 비기지 못할 위대한 장군님의 한량없는 사랑과 은정은 그대로 비전향장기수들에게 재생의 불사약이 되어 남쪽에서 깃뚫혔던 그들의 육체에 청춘의 활력을 부어주었다. 그 사랑, 그 은정속에 남조선에서 《숨쉬는 화석》으로 불리우던 비전향장기수가 귀여운 딸자식까지 보아 온 나라 인민들을 기쁘게 하는 경사도 생겨났다.

어제 그 뿐이라.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세상을 떠나는 비전향장기수들을 한사람한사람 생의 언덕인 신미리에국립사릉에 안치하도록 하시며 그들의 삶을

조국이 알고 후대들이 영원히 기억하도록 해주셨다. 정녕 그것은 조국과 민족을 위한 애국의 삶을 영원히 빛내어주시려는 한 없이 고결한 사랑과 의리의 빛나는 결정체였다.

비전향장기수들에 대한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사랑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에 의해 변함없이 이어지고있다.

민족의 대국상을 당하고 온 나라 인민들이 피눈물속에 몸부림치던 그 날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누구보다 큰 상심의 아픔을 안으신 속에서도 비전향장기수들에게 고공어족을 비롯한 식료품들을 가슴가득 안겨주시는 크나큰 은정을 베풀어주시었다. 자신께서는 삼복철의 무더위도 아랑곳없이 전선시찰의 길을 이어가시면서 도 비전향장기수들의 건강을 녀려하시며 휴양길과 료양길, 동해명승 송도원과 천하절승 금강산으로의 탐승길도 마련해주셨다.

비전향장기수들이 로망익장하여 값높은 삶을 누리도록 극진히 보살피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크나큰 사랑과 은정에 의해 비전향장기수들은 위대한 수령님 탄생 100돐경축행사와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 전국로병대회를 비롯하여 여러 대회들에 대료로 참가하는 최상최대의 영광도 누리었다.

비전향장기수들이 영광과 행복의 최절정에서 보람찬 삶을 누리고있는것은 숭고한 혁명적동지애와 의리의 최고화신인 위대한 수령님들과 경애하는 원수님에 의한 격동적인 화폭이다.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동지애의 세계, 인민에 대한 열화와 같은 사랑을 그대로 이어받으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계시어 비전향장기수들의 행복한 어제와 오늘 그리고 래일이 있다.

민족의 자애로운 어머니이시고 철세위인인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를 충정으로 받들어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을 관철하는 길에 여생을 강그리 바쳐가겠다는 것이 비전향장기수들의 드립없는 신념과 의지의 맹세이다.

주체76(1987)년 7월 12일일에 대해 생각하시며 깊은 관심을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서는 총련의 일군들과 단화를 나누시다가 한 상공인의 기업활동정형에 대하여 물으시었다.

그는 사회주의조국건설에 귀중한 공헌을 하여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 큰 기쁨을 드린 상공인이었다.

고향을 남조선에 둔 제일 동포 1세인 그는 상기업을 하여 한푼두푼 돈을 모으면서 그 돈을 자기와 자기 가족을 위해서는 극력 쓰지 않았다.

나라없던 지난날 같으면 어떻게 이역땅에서 이처럼 상기업을 할수 있었는가. 위대한 수령님께서 나라를 찾아주시고 총련을 무어주시였기에 공화국의 당당한 해외공민으로 되었으며 장사도 할수 있지 않았는가. 그러나 조국을 떠나 자기 한몸의 호강이란 있을수 없다는것이 그의 드립없는 생활관이었다.

하기에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그해 2월중순 그의 애국적활동에 대한 보고를 받으시고 매우 만족하시며 조국에 바친 지성도 지성이거니와 거기에 깃든 애국의 마음이 더욱 소중하다고, 그에 대한 표창사업을 크게 하여야겠다고 교시하시었다.

그러하여 그해의 태양절을 맞으며 그는 안해와 함께 조국에 와서 어머니수령님을 만나뵙고 영광의 기념사진을 찍었으며 공화국공민의 최고영예인 로력영웅칭호와 수령님의 존함을 모신 금시계를 수여받은 영광을 지니게 되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태양절이 지난 며칠후에는 그가 예순번째 생일을 쇠지 않았다는것을 아시고 그에게 생일상을 보내주도록 하시려는 크나큰 은정도 베풀어주시었다.

을 다 안겨주시고도 또다시 그에 대해 생각하시며 깊은 관심을 돌려주시는 위대한 장군님을 우리는 일군들은 가슴뜨거워움을 금할수 없었다.

뒤이어 평양의 중심부에 새로운 거리가 드디어 완공되었다는 보고를 받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잠시생각에 잠기시었다가 새로 건설된 거리를 그의 이름으로 부르도록 하자고, 그에 대한 정령을 잘 써서 발표하도록 하여야 하겠다고 뜨겁게 교시하시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일군들에게 사랑과 믿음이 넘치는 음성으로 지금까지 공장설비를 조국에 바친 재일상공인들에 대하여 공장에 그의 이름을 달아주고 비도 세워주었는데 앞으로 애국적인 상기업활동을 한 상공인들에게는 거리, 건물, 다리, 굴 등과 같은세 이름을 달아주고 비도 세워주어야 한다. 그러한 상공인들의 충실성을 평가해주고 그들속에서 애국심을 더 높이 발휘하도록 고무해주어야 한다고 가르쳐주시었다.

그이의 교시를 받아안으며 일군들은 생각하였다. 세상에 총련상공인들처럼 행복한 사람들이 또 어디있겠는가.

정녕 그이의 사랑과 믿음이 있어 그들의 삶이 빛나고 영예로운것이 아니겠는가. 그날로부터 얼마후 조국의 신문과 방송에서는 일제히 평양시에 새로 건설된 거리를 총련상공인의 이름으로 제정함에 대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앙인민위원회(당시)의 정령을 내보내었다.

한 동포상공인의 애국지성을 높이 내세워주고 그에게 모든 영예와 행복을 다 안겨주고싶은 영예로운 정령을 내보내었다. 위대한 장군님의 사랑은 이렇게 꽃이 피었다.

주실수 있는 모든 사랑과 믿음

## 이역의 동포상공인이 받아안은 영광

최진욱

# 윤석열호전집단은 이 땅에 전쟁위기를 몰아오는 주범이다

## -모험적인 《을지 프리덤 실드》 합동군사연습을 두고-

윤석열호전집단이 미국과 야합하여 벌려놓은 《을지 프리덤 실드》합동전쟁연습이 1일 막을 내렸다.

그러나 투입된 무력규모에 있어서나 침략적성격의 모험성, 실행한 전쟁작전에 있어서 극도로 위험천만하였던 이 전쟁연습의 최악에는 아직 가시지지 않고있다.

### 극악무도한 《북주적론》의 실전행위

이번 《을지 프리덤 실드》합동군사연습은 윤석열역적패당의 극단적인 반공부적대감의 직접산출이며 그 무모함이 어느 지경에 이르렀는가를 실증해주는 산증거이다.

정책의 본질과 성격은 실전행위에서 그대로 표현된다. 상대방을 적대시하지 않고 공격할 기도가 없다면 굳이 방대한 무력을 투입하여 전쟁연습을 벌릴 필요도 리유도 없다.

윤석열역적패당은 새로 집권하기 바쁘게 《국제관계》에 《북정권과 인민군은 적》이라는 대결용어를 쏘아박고 우리 제도와 체제를 힘으로 압살해하려는 극히 무모한 적대시정책이 《국제》임을 숨기지 않았다.

동족을 주적으로 보고 멸시키겠다는 《북주적론》이 북침론의 예고편이라면 《을지 프리덤 실드》는 그 실행편이라고 할수 있다.

남조선 전 지역에서 미제침략군과 괴뢰군의 각 군종, 병종의 야전부대들과 4 000여개의 공공기관, 48만여명의 민간인까지 투입된 가운데 강행된 이번 북침전쟁연습은 철두철미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고 온 민족을 핵전쟁의 불안과 공포속에서 몰아넣은 극도로 모험적인 군사적도발이다.

적대와 침략의 광기는 거저과 위선으로 가려울수 없다. 윤석열역적패당은 내외에서 《북주적론》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자 돌변하여 《남북합의존중》이니, 《담대한 구상》이니 하며 저들의 대결홍성을 감추어보려 했지만 그것은 서문짜리 오그랑수에 불과하였다.

《8.15경축사》라는데서 《담대한 구상》이란것을 내놓은 다음날에 《을지 프리덤 실드》합동전쟁연습에 진입한 사실은 역적패당의 이중성이 과연 어느 지경인가를 다시금 말해준다.

예당초 역적패당에게는 그 어떤 선의와 진정마위가 터럭만큼도 없었으며 오직 우리 공화국을 힘으로 압살할 야망만이 지글지글타다.

역적패당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북조선에 대한 적대의사가 없다》는 미국상전의 기만술을 흉내내며 《실질적인 평화정착》이니, 《힘에 의한 현상변경은 원하지 않는다》느니 하고 요설을 해대고있지만 누가 그에 귀기울이겠는가.

윤석열역적패당이 대북적대정책을 가리워보려던 어설픈고 기만적인 허물은 이번 《을지 프리덤 실드》합동군사연습에 의해 여지없이 낱알이 벗겨졌다.

대결의 길로 줄달음치며 역적패당이 떠들어대는 《힘에 의한 평화》는 곧 힘에 의한 대결이며

### 불의적인 기습공격을 노린 실전연습

이번 《을지 프리덤 실드》합동군사연습은 우리 공화국에 대한 불의적인 선제타격을 노린 극도로 위험천만한 실전연습이라는것을 여지없이 드러내놓았다.

윤석열호전집단은 미국과의 《을지 프리덤 실드》연습이 《년례적인 방어훈련》이라고 한사코 강변해나섰다. 《방어적성》을 강조하기 위해 《방패》라는 새 간판을 내걸었는가 하면 북침공격훈련에조차 《역공격》, 《반격》이라는 메커를 붙여놓고 《정당방위성》을 부각시켜보려는 위장술을 구사처럼 벌려놓기도 하였다.

장구한 인류전쟁사는 적대관계의 진영들사이에 벌어지는 군사연습들이 임의의 시각에 실제적인 전쟁으로 넘어간 사례들을 생생히 기록하고있으며 특히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군사연습일수록 보다 위험하다는것을 한두번만 보여주지 않았다.

이번 연습이 《년례적》이고 《방어적》이라는 적들의 변명어 얼마나 황당무계한 꾀에 지나지 않는가는 벌어진 사실들을 통해 잘 알수 있다.

《을지 프리덤 실드》합동전쟁연습의 전 과정과 적용된 전쟁작본들, 실행된 훈련내용만 보아도 철두철미 선제공격형의 실동연습이라는것이 명백하다.

이번 합동군사연습은 괴뢰군의 전쟁준비태세인 《테코프》이 한단계 격상된 속에 그 누구의 《도발》로 인한 국지전에 대응

《실질적인 평화정착》은 전쟁을 통한 《제도전복》이라는것을 만천하에 명백히 확증하였다.

하기 위한 절차를 숙달한다는 4일간의 위기관리연습으로부터 막을 올렸다.

기본단계의 연습에서는 조선반도에서의 전면전쟁을 가정하여 남조선강점 미제침략군과 괴뢰군이 전신체제로 전환하고 공적으로 《북의 공격》을 격퇴하며 괴뢰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공무원들을 총동원시켜 《국가총력전》을 수행하는 1부 연습이 《방어》의 간판을 달고 벌어졌다.

특히 8월 29일부터는 《적》주력의 익추와 후방을 공격하여 개성축선을 따라 평양이남계선까지 진격한다는 2부 《반격》연습이 호전적광기를 띠고 강행되었다.

이번 연습은 《참수작전》과 《평양정령》, 《핵선제공격》계획이 포함된 약명높은 《작전계획 5015》에 따라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더욱 간파할수 있다.

현실적으로 이번 합동군사연습기간에 감행된 모든 야외실기동훈련들이 북침선제공격에 초점을 맞춘 상태에서 벌어졌다.

남조선강점 미제침략군과 괴뢰특수전사령부, 해군함대사령부 공군16전투비행단을 비롯한 각 군종 괴뢰군부대가 투입되어 연합특수전훈련, 연합대량살상무기 훈련, 《쌍매》훈련 등 13개에 달하는 실동훈련들을 실전과 다름없이 진행하였다.

특히 《북수뇌부제거》, 《평양진격》을 작전임무로 하는 남조선미국련화산단이 창설이후 최대규모의 합동훈련을 실시하

였다.

이번 합동군사연습기간 윤석열역도 《전시지휘소》라는데 나타나 마지막까지 실질적인 연습을 진행하라고 쫓겨대고 괴뢰군방부 장관 리중섭을 비롯한 호전광들도 즉각 대응태세니, 전시일무수행능력의 극대화니 하며 정령을 고치한 사실은 이번 《을지 프리덤 실드》합동군사연습의 무모성과 위험성을 그대로 보여주고있다.

### 항시적인 전쟁위험을 예고해준 북침광기

이번 《을지 프리덤 실드》합동전쟁연습은 윤석열역도가 권력의 자리에 틀고앉아있었던 조선반도의 전쟁위험은 각일각 증대되고 정세악화는 피할수 없다는것을 특특히 보여준 직접적계기로 되었다.

력대 괴뢰통치배들이 윤석열역도처럼 전쟁연습에 집착하며 불장난을 즐기는 광신자는 일찌기 없었다.

집권하기 전부터 이전 괴뢰정부에서 축소된 미국과의 합동군사연습을 복원하겠다고 쫓겨낸 윤석열역도는 취임 보름만에 열린 남조선미국 《정상회담》에서 상전으로부터 합동군사연습의 대폭확대를 약속받고 가장 큰 외교성과라고 광고해냈다.

런이는 미국상전과의 《국방장관회담》, 《외교장관회담》 등 각종 모의판들에 전쟁연습문제를 기본의제로 상정시키고 대규모에서 벌려놓는것으로 간청하여 확답을 받아냈다.

원래 윤석열역도가 괴뢰대통령실을 청와대가 아닌 괴뢰국방부청사에 반계한것자체가 집권 전기가 반공화국적대시와 북침광기를 일삼겠다는 로골적인 대북선전포고를 한것이나 다른

세계최대의 화약고로 공인되어 있는 조선반도에서 교전일방을 반대하여 해마다 선제타격을 가상한 실전연습을 벌리는것처럼 위험한 군사적도발은 없다.

윤석열역적패당은 미국과 함께 강행한 《을지 프리덤 실드》합동전쟁연습이 우리 공화국에 대한 불의적이고 선제타격인 공격을 노린 실동작전, 무모한 예비전쟁이었다는것을 그 무엇으로써도 가려울수 없다.

이번 《을지 프리덤 실드》합동군사연습은 북침전주곡에 불과하다고 할수 없다.

벌써부터 윤석열역도는 다음해에 《확장적》의 간판을 내걸고 미제침략군 핵확포포함을 비롯한 핵전쟁살인장비들이 동원되는 남조선미국합동전쟁연습을 포함하여 각종 북침전쟁연습의 규모와 회수를 대폭 늘어겠다고 공언해내고있다.

조선반도에 전쟁연습의 화약내가 가시적 날이 없을것이며 우리 민족은 항시적인 전쟁위험속에 날날을 보내야 한다는것이 기상사실로 되고있다.

《윤석열이 집권하면 전쟁난다》고 한 내외의 우려가 현실로 림증되고있으며 역도의 집권이야말로 최악의 재난이라는 남조선인민의 평가는 백번 정당하다.

윤석열역도가 《대통령》버거 지를 쓰고있지만 우리 민족이 언제 가서 평화와 안정을 기대할수 없으며 정세는 더욱 악화될수밖에 없다는것이 이번 《을지 프리덤 실드》합동군사연습이 보여준 또 하나의 결론이다.

윤석열역도가 《대통령》버거 지를 쓰고있지만 우리 민족이 언제 가서 평화와 안정을 기대할수 없으며 정세는 더욱 악화될수밖에 없다는것이 이번 《을지 프리덤 실드》합동군사연습이 보여준 또 하나의 결론이다.

우리 공화국에 대한 선제타격을 노린 위험천만한 《을지 프

린 실드》합동군사연습은 북침전주곡에 불과하다고 할수 없다.

벌써부터 윤석열역도는 다음해에 《확장적》의 간판을 내걸고 미제침략군 핵확포포함을 비롯한 핵전쟁살인장비들이 동원되는 남조선미국합동전쟁연습을 포함하여 각종 북침전쟁연습의 규모와 회수를 대폭 늘어겠다고 공언해내고있다.

조선반도에 전쟁연습의 화약내가 가시적 날이 없을것이며 우리 민족은 항시적인 전쟁위험속에 날날을 보내야 한다는것이 기상사실로 되고있다.

《윤석열이 집권하면 전쟁난다》고 한 내외의 우려가 현실로 림증되고있으며 역도의 집권이야말로 최악의 재난이라는 남조선인민의 평가는 백번 정당하다.

윤석열역도가 《대통령》버거 지를 쓰고있지만 우리 민족이 언제 가서 평화와 안정을 기대할수 없으며 정세는 더욱 악화될수밖에 없다는것이 이번 《을지 프리덤 실드》합동군사연습이 보여준 또 하나의 결론이다.

윤석열역도가 《대통령》버거 지를 쓰고있지만 우리 민족이 언제 가서 평화와 안정을 기대할수 없으며 정세는 더욱 악화될수밖에 없다는것이 이번 《을지 프리덤 실드》합동군사연습이 보여준 또 하나의 결론이다.

우리 공화국에 대한 선제타격을 노린 위험천만한 《을지 프

린 실드》합동군사연습은 북침전주곡에 불과하다고 할수 없다. 벌써부터 윤석열역도는 다음해에 《확장적》의 간판을 내걸고 미제침략군 핵확포포함을 비롯한 핵전쟁살인장비들이 동원되는 남조선미국합동전쟁연습을 포함하여 각종 북침전쟁연습의 규모와 회수를 대폭 늘어겠다고 공언해내고있다. 조선반도에 전쟁연습의 화약내가 가시적 날이 없을것이며 우리 민족은 항시적인 전쟁위험속에 날날을 보내야 한다는것이 기상사실로 되고있다. 《윤석열이 집권하면 전쟁난다》고 한 내외의 우려가 현실로 림증되고있으며 역도의 집권이야말로 최악의 재난이라는 남조선인민의 평가는 백번 정당하다. 윤석열역도가 《대통령》버거 지를 쓰고있지만 우리 민족이 언제 가서 평화와 안정을 기대할수 없으며 정세는 더욱 악화될수밖에 없다는것이 이번 《을지 프리덤 실드》합동군사연습이 보여준 또 하나의 결론이다. 우리 공화국에 대한 선제타격을 노린 위험천만한 《을지 프

린 평원